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새로운 어로신화를 창조해가고있는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인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황금해력사창조의 첫 페이지를 쓴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는 자신과 깊은 정을 맺은 곳이라고, 이곳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싶어 또다시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배전이 넘치게 물고기를 가득 싣고 들어와 한창 하륙작업을 하고있는 고기배 《단풍1-03》호에 오르시어 어로공들의 고기비늘물은 손을 반갑게 잡아주시고 그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물고기잡이 및 저장실내, 공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랭동저장고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물고기판들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면서 인민군대안의 수산사업소들에 나가보면 어디서나 이런 호젓한 풍경을 볼수 있다고, 8월25일수산사업소 랭동저장고도 터져나가도록 물고기들이 꽉 차있는데 정말 기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물고기 가공장에서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어로공



들의 안해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남편들은 풍랑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면서 당이 제시한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였고 안해들은 가족소대를 못고 경쟁적으로 물고기가공전투를 벌리고 있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업소 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늘대를 말으니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이 잡아들인 물고기를 미처 처리하지 못해 고심하고있는데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다가도 이런 행복에

겨운 이야기를 들을 때면 새힘이 솟고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에 고기배를 무어 보내주면서 오곡백과 주렁진 풍요한 가을이 바다에서도 펼쳐지기를 바라며 배들의 이름을 《단풍》호라고 지어주던 날이 엇그제같은데 오늘같은 기적이 빨리도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 높이 쌓아올리고있는 물고기보물산은 불굴의 정신력이 응축된 위훈의 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올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 이룩하고있는 놀라운 성과들을 통하여 황금해의 새 역사를 반드시 창조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 굳게 가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 앞으로 계속 이 기세로 분발하여 투쟁도 투쟁함으로써 황금해의 역사를 애국충정의 피와 땀으로 줄기차게 써나가는 수산혁명의 선구자, 바다의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바다는 우리 세대와 후손만대가 덕을 볼 무궁한 자원이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이 당의 수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충정심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세세년년 물고기대풍, 물고기사태를 마련하는것으로써 부강조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수산부문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올해에도 자랑스런 물고기사태를 안아왔다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해마다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조선인민군 제380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380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대련합부대는 현대전의 공격과 방어에 다 준비된 강위력한 정예대로로 자라났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380대련합부대가 지난 기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스런 위훈을 세웠으며 특히 북부괴해복구전선에 급파되어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우리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기풍, 전투적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부대장병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련합부대에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 들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 부대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인회관을 돌아보시면서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것처럼 혁명가에게는 사상정신적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군인들을 사회주의조국수호의 길에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불굴의 투사들로 더욱 억세게 키우기 위해서는 당이 제시한 5대교양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사연

구실에서 대련합부대장으로부터 대련합부대의 방어작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전투문건들을 검토해주시였으며 작전강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대련합부대관하 부대들의 임무수행과 훈련실태,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련합부대의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체전법, 항일무장투쟁과 지난 조국해방전쟁경험을 깊이 연구하고 적들이 최근시기 감행하고있는 전쟁방식,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르는 작전전술의 변화에 대하여 파고들어 모든 작전과 전투를 우리 식대로 해나갈수 있는 기묘하고 령활한 작전전술적방안들을 완성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든 훈련을 실천과 같이 조직하고 훈련장마다에서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

써 군인들을 여러가지 전투행동조법들에 정통한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여세계 준비시켜가고있으며 특히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킬드 높은 열의를 안고 훈련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380대련합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380대련합부대가 지키고있는 방어지대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놓는다고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부대장병들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류미영선생의 서거에 대한 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선생은 폐암으로 주제 105(2016)년 11월 23일 12시 10분에 95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류미영 선생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받들어 민족의 통일번영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여온 애국적인 정치활동가이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인 주제10(1921)년 2월 14일 이국땅에서 애국지사 류동열선생의 외동딸로 태어난 류미영선생은 망국노의 설움을 사무치게 체험하면서 참다운 애국의 길을 찾아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왔으며 남조선과 해외를 방황하다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속에 극적인 인생전환을 하고 남편 최덕신선생과 함께 공화국에 영주하여 보람있는 삶을 누리였다.

선생은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교문,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사업하면서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로선과 조국통일로선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선생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한울님으로, 구세제민의 태양으로 우러러 흠모하면서 온 겨레의 단합과 통일의 새날을 앞당겨주기 위하여 심혼을 다 바치였다.

선생은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이바지한 공로로 하여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조국통일상과 많은 국가표창들을 받았다.

선생은 비록 서거하였으나 조국과 민족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주제 105(2016)년 11월 23일

## 세기를 이어 빛나는 조선여성들의 값높은 삶

###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단장 강조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단장인 남주현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회견에서 그는 조선녀성운동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역사적인 대회에 참가한 끝없는 기쁨과 감격을 금치 못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 조선여성들의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기상을 과시한 총정의 대회였다.

대회에 참가하고보니 우리 여성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해주시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사무치게 안겨와 솟구치는 눈물을 견잡을수 없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여성문제해결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여성들의 참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사회주의조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녀성단체로 빛나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의 강화발전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손길이 어려여였다.

대원수님들께서는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동포녀성들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재일조선인운동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맡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키워주시였다.

진정 조선녀성운동이 걸어

온 자랑스러운 행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빛나는 력사이다.

주체적녀성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마련하여 주신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업적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길이 빛날 것이다.

오늘 조선녀성운동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녀성들을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시였다.

세상에 우리 조선녀성들처럼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세기를 이어가며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복받은 녀성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태양의 품이 있어 녀성의 존엄도 있음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심장깊이 새긴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떠받드는 뿌리가 될 일념으로 불타고있다.

우리 재일동포녀성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녀성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 자녀들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일련단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 북변천리에 웃음꽃바다 펼쳐졌다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는 북부피해지역에 기쁨과 행복의 웃음꽃바다가 펼쳐졌다.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폭우로 혹심한 재난의 파도가 휩쓸었던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 솟아난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은 지금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다.

나라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새 집문턱을 섰듯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생활조건이 그췌히 갖추어진 방들을 돌아보며 가구들을 쓸고 또 쓸어보며 너무 기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들, 친어머니의 따뜻한 정이 어린 살림방들과 각종 정질유리그릇들이 가득찬 찬장, 집집마다 쌓아놓은 식량과 빨감들을 보며 피해지역인민들은 격정에 겨워 울고 웃는다.

크고 멋진 새 집을 받아안게 된것이 꿈만 같아 자다가도 일어나 새 집을 쓸어본다는 로인이며 혼자 살던 집이 무너졌기에 내게까지 어떻게 새 집이 차례지랴 했는데 나에게도 덩실한 새 집을 안겨주었다며 너무나 큰 행복에 몸둘바를 몰라하는 녀인, TV에서 보던 회한한 락아소가 우리 마을에도 생겼다고 기뻐하며 조금만 젊었어도 아이를 낳고싶은 심정이라고 웃고 떠든 경흥땅의 녀성들... 소스라치는 대재난의 시각은 언제였던가 싶게 기쁨에 젖고 행복에 웃는 피해지역인민들이다.

자고로 재난이 휩쓴 곳에서는 슬픔과 불행의 눈물, 땅이 꺼지는 듯 한 탄식소리만이 울리기마련이지만 이 땅에서는 피해지역인민들이 터

치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모른다.

자본주의세상같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놀라운 이 현실은 어떻게 펼쳐진것인가.

무릇 웃음은 인간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절로 피어나지 않는다. 억지로도, 강요로도 피울수 없는것이 인민의 웃음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일 피우기 힘든것이 인민의 웃음꽃이라고 했으리라.

웁은 말이다. 자연의 꽃은 철이 되면 절로 피지만 인민의 웃음꽃은 인민을 위하는 백옥같이 순결한 진정의 토양우에 진하다진한 헌신의 땀방울을 자양분으로 하여서만 피어난다.

그 진귀한 인민의 웃음꽃을 세상에 없는 불같은 애민헌신의 세계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온갖 정성을 다해 안아 피우

시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대재앙이 이 나라의 북부지역을 휩쓸어 갔던 지난 9월 세상을 진감하며 울려 퍼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숭고한 뜻이 담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의 구절구절을 잊지 못하고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져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북부피해복구전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이제 당장 들이닥칠 엄혹한 강추위앞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위대한 어머니의 인민사수, 인민복무의 정신이 뜨겁게 맥

박치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은 뜻밖에 보금자리를 잃고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인민들의 상처입은 가슴가슴을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적셔주었다.

돌이켜보면 대재난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수습일간의 나날들은 그대로 국가의 크나큰 사랑과 정의 일력이었다. 세상에 다시없을 인민사랑의 서사시였다.

순가락, 저가락으로부터 식량과 기초식품, 사연깊은 물고기며 부식물과 빨감, 모포와 이불, 내의류와 솜옷, 아이들의 학용품, 거의 매일이다삭이 받아안은 다심하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

위대한 어머니의 크나큰 사랑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펴 주고있기에 난생 처음 당한 엄청난 재난속에서도 피해지역인민들은 비판과 절망에 잠겨있지 않았다.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이께서 계시어 불행에 가시고 더 잘살게 된다는 신심에 넘쳐 웃으며 강인히 일떠섰다.

예로부터 집안에 불행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두워지는 것이 아이들의 얼굴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이 알았으랴. 아버지원수님께서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아이들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의 즐거운 야영길도 마련해주시고 온 나라의 축복속에 한생토록 잊지 못할 행복한 나날을 보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실줄을.

그 다심한 은정속에 피해지

역아이들이 송도원에서 이 세상 만복은 다 저희들의것인듯 끝없는 즐거움에 잠겨 마음껏 웃고 떠들며 너무 좋아 어쩔바를 몰라하지 않았던가.

비록 재난을 당했어도 불행이란 말조차 모르고 다심한 아버지정에 울고웃어온 피해지역인민들, 그 웃음은 오늘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는 북변천리 이르는 곳마다에 웃음꽃바다를 펼쳐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정신이 안아 피운 북변천리의 웃음꽃바다!

그 웃음꽃바다야말로 오직 인민만을 알고 인민만을 위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인민이 터치는 끝없는 격정의 분출, 떨어져 순간도 살수 없는 위대한 품을 노래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 온 남 녀 이 박 근 혜 라 도 에 나 섰 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창원



대구



진주



춘천



울산



경주



제주도



려수





